



미래에셋 장학자원을 통한 특별한 오늘, 두근거리는 미래

2016
미래에셋 장학생
희망스토리 공모전
당선작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제작배경

2016년 8월~9월간 미래에셋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셋 장학지원을 통한 성장,꿈,도전이란 주제로 희망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출품된 작품 중 우수작 15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성장

01 나의 글로벌 시장 성장에 문을 열어준 브랜드 "MIRAE"	국내장학생 1기 최혜령	_03
02 내 인생의 기적의 티켓	해외 교환장학생 4기 이민호	_06
03 미래에셋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향해하다	해외 교환장학생 5기 김해인	_08
04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	해외 교환장학생 15기 홍지수	_11
05 나의 성장, 진짜 어른 되기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장은제	_14
06 어른이 되기 위한 길목에서 도전한 멋진 턴(turn)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오도영	_17
07 나만의 Gap Year, 내게 집중하는 시간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김지영	_20

꿈

08 미래에셋 장학생 때의 초심과 다짐, 지켜내고 이뤄내다	해외 교환장학생 13기 김다솔	_22
09 과거의 꿈, 현재의 꿈, 미래의 꿈	해외 교환장학생 14기 정다운	_24
10 절망의 끝에서 배운 인생수업	해외 교환장학생 15기 나유빈	_26
11 나의 달과 나의 6펜스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문예진	_28
12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과 함께한 나의 꿈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신동원	_30
13 낯선 땅에서 찾은 나의 '꿈'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김주평	_33

도전

14 미래에셋 장학생에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창업까지	글로벌 투자전문가 2기 박홍민	_35
15 얼어붙은 곳에 신명의 씨앗을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정병수	_37

나의 글로벌 시장 성장에 문을 열어준 브랜드 “MIRAE”

성장 01

국내장학생 1기 최혜령 (2000년 선발)

내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90년대 중반은 많은 여대생들에게 꽤 고무적인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소위 명문대의 경영대, 법대, 의대 등 통상 남학생 선호 학과에서 여학생 신입생 숫자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가 하면 각종 고시에서도 여학생 합격자가 10%가 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였다. 마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모든 여학생들이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고 눈앞에는 무지개 같은 꽃길이 펼쳐 있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 했다. IMF 구제 금융 위기가 온 나라를 덮친 것이다. 나의 모교인 연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졸업하면 대기업 취직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난 30년간의 공식이 깨진 첫 세대가 되었고, 여학생들의 취업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결국 나는 구직시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즘 말로 스펙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영학과와 응용통계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 해서 문과를 선택했던 나로서는 응용통계를 복수전공한다는 것은 취직을 위해 입시 때 거의 포기했던 수학 공부를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이 안된 수학 실력 때문에 응용통계학과 공부는 기본 과정을 따라가기도 너무 벅찼다. 학점을 받기도 힘들었고,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이 이해도 가지 않았다. 한 학기를 마치고 결국 나는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전공 철회서를 제출하려던 내게 응용통계학과 과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1학년 때야 쉽게 장학금을 받았지만, 2학년 이후 버거운 응용통계학과 전공을 킁킁대고 따라가느라 학점이 낮아진 상태였기에 내가 장학금 수혜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미래에셋으로 장학증서를 받으러 갔을 때 나는 미래에셋 국내장학생 중 응용통계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 중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응용통계 복수 전공을 철회하면 장학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등록금의 절반 가까운 장학금을 포기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학기 더 응용통계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다.

장학금 수여식은 인상적이었다. 여의도 미래에셋 빌딩에서 사진 촬영 후 지금은 업계에서 전설이 되신 분들과 한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 다음날 어느 경제 신문인가에 기념사진이 실려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그전까지 증권업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던 나로서는 그날 미래에셋 그룹의 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뮤추얼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권업이 단순히 증권사 객장에서 투기목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미래 청사진을 사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날 수여식에서 들었던 말도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鷹立如睡 虎行似病 (응립여수 호행사병, 독수리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는 앓는 듯이 걷는다) 채근담에 있는 말로 강한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항상 기회를 포착하고 준비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힘들어도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다음 해에도 미래에셋 국내장학금의 수혜자가 되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응용통계학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의 복수 전공은 일 년 더 늘어났다. 처음엔 내키치 않았던 응용통계학 공부였지만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미래에셋에서 돈을 주고 억지로 어려운 공부를 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IMF로 인한 취업난은 심해졌고, 복수 전공만으로는 높은 취업의 문을 뚫을 수가 없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공인 회계사 시험 준비로 방향을 선회했다. 자격증이라도 따면 취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렇게 미래에셋과 응용통계학과 복수 전공은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 나는 회계사가 되어 삼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3년간 적성에 맞지 않는 회계사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른 경제 주체가 이미 해놓은 것이 정확한지를 재점검하는 회계사의 본연 업무 자체가 내 적성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LG 필립스 엘시디와 신한지주의 한국/미국 상장 업무에 참가하게 되었고, 주식시장에 과거 정보를 공급하는 업무보다는 좀 더 시장과 가까운 일이 내게 더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직장을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더구나 평범한 기혼의 회계사인 내게는 인터뷰를 볼 기회조차 쉽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인 활동을 한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모교 취업 지원실 홈페이지에서 CSFB HOLT에서 한국 주식시장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 하면서 한국 회계를 잘 알면서 주식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게 되었다. 당시 내 주변에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지도 몰랐었다. 나는 열심히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 지원했고 우여곡절 끝에 인터뷰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CSFB HOLT 최초의 한국인 직원이 되었다. 당시 우리 부서에는 다양한 국적의 200명가량의 직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미국 명문대 출신이었다. 우리 부서 자체가 아카데미한 성향이 강한 편이고 부서의 본사가 시카고에 있는 관계로 시카고 대학을 나온 동료들이 많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아시아의 듣도 보도 못한 학교 출신에 게다가 한국에서만 공부한 낯선 지원자였던 셈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내가 이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미래에셋 국내장학금 덕분이었다. 당시 홍콩서 채용을 주도했던 인도인 임원의 동향 친구가 홍콩 미래에셋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미래에셋 TV 광고에도 나오셨던 분이였다. 그분 말씀으로는 미래에셋에서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겠구나 해서 300장 넘게 쌓여있던 이력서 중에 내 이력서가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얼떨결에 받았던 미래에셋 국내장학금이 나의 경력을 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주춧돌이 될 줄이야.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나는 미래에셋 국내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때의 인상 깊었던 기억을 얘기했고 다행히 그분은 나를 좋게 보셨다. 이후 본사 임원과 2번의 인터뷰를 더 거친 다음 입사하게 되었다. 내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는 내가 잊고 지냈던 '미래(Mirae)'라는 단어였던 셈이다.

나는 크레디트 스위스 홀트(Credit Suisse HOLT)로 이름이 바뀐 이 부서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변화에 불구하고 한자리에서 이례적으로 1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미래에셋 국내장학금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부서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DCF 기반의 주식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 시장에 관한 리포트를 쓰는 데서 나아가 패시브 전략이나 마켓의 주식 스타일 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업무를 한다. 시니어가 될수록 경제학이나 통계학 석박사 출신 친구들이 더 각광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나는 대학 때 2년 동안 미래에셋 국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응용통계학을 공부한 덕분에 금융업계의 부침이 심했던 지난 10년간 같은 자리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종사하는 금융계는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 걸음마 단계이다. 그래도 한국의 금융업이 나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셋'과 같은 한국의 토종 브랜드 금융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받았던 미래에셋 국내장학금이 나의 경우엔 직업적 성장을 도와준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되어주었다.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미래'가 내게 그랬듯이 국제 금융업계로의 진입을 꿈꾸는 한국인 후배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인생의 기적의 티켓

성장 02

해외 교환장학생 4기 이민호
(2009년 오스트리아 파견)

2008년 군 제대 후 복학을 하면서 해외 교환학생을 준비했다. 해외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교류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 막연하게 갖고 있던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목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류를 제출하고 몇 번의 면접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Upper Austr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라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환학생 학비는 기존 한국 학교와 동일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비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곧 절망하게 되었다. 당시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아르바이트와 일정 부분의 학비 장학금으로 대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며칠간 고민 끝에 당장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거의 포기하기 직전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래에셋'에서 해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지원하였다. 다행히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작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아 우여곡절 끝에 포기 직전에 있던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다.

교환학생으로 지원한 오스트리아의 Upper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 약 80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교환학생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한 학기를 보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익숙한 전공 과목들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토론을 하며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몇 번의 수업 후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게 되면서 나 역시 수업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경험은 그 이전 한국에서 5학기 동안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성장의 시간이었다. 우선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닌 매 수업시간 하나의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수업 이전에 해당 주제에 관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미리 학습하고 설득을 위한 논리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영어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 주제 관련 어휘들을 포함하여 영어공부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또한 단순히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통해 내가 얻은 것 중 무엇보다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한 학기 동안 조별 수업을 준비하며 최우수 발표자로 뽑히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 파티를 준비하는 등 일상을 공유하고 경쟁하면서 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더 쌓게 되면 나도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중한 경험이었던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1년 1월 전 직장인 롯데면세점 마케팅팀에 입사를 했다. 약 4년 동안 롯데면세점에 근무하면서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신규 점포 오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에이전시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교환학생 시절 다양한 국적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토론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만 4년간 롯데면세점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현재 직장인 신세계면세점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고 현재는 마케팅기획팀에서 국내외 마케팅 환경분석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교환학생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스스로 여러 논문 등을 보면서 공부를 해온 습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못했더라도 내 인생의 궤도가 크게 바뀌었거나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 6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니 오스트리아에서의 6개월은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추억이라는 감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교환학생의 경험은 나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었다. 막연했던 목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더 큰 세상에 한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6년 전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이니 간절하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면접을 보러 가는 그날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이렇듯 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장학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고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기적의 티켓이 되어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미래에셋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향해하다

성장 03

해외 교환장학생 5기 김해인
(2011년 영국 파견)

2010년 겨울,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2011년 2월 영국 Nottingham 대학교로 3학년 1학기 과정 유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등록금 외에도 영국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이 부담스러워 선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서 진행하시는 해외 교환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 성공적으로 영국의 교환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 당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교환학생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한 면접관이 물어보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재학 중이었습니다만,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이 있던 것은 환경 정책 분야, 그 중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글로벌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다행히 면접관께서 저의 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고, 저는 최종적으로 합격하여 노팅엄 대학교에서 환경 정책 분야 강의를 수강하였고, 동시에 학교 내 학생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직접적인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 한 후, 저는 환경 분야에 대해 훨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러한 경험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에게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저의 진로와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의 영어 어학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후, 저는 제가 가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균형'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입니다. 오랜 진로 탐색 끝에, 저는 해군 학사장교로의 입대를 결정하였습니다.

해군은 널리 알려져 있는 군사적인 영해 보호 이외에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실천을 진행하는 국가조직입니다. 이러한 해군의 특성이 제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가치에 잘 부합한다고 여겼고, 또한 제가 받은 장학 혜택을 제가 가진 역량으로 국가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 해군장교

로 복무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결국 졸업 후 1달 후인 2012년 3월 해군 학사장교 112기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약 9개월간의 장교 양성 훈련 과정을 거친 후인 2012년 가을, 저는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해군2함대 사령부 해상전투단 소속의 초계함 PCC-공주함에 소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주함의 주요 임무는 NLL(서해북방한계선) 수호, 해양 폐기물 및 불필요 어망 제거 등의 해양 환경 보호 활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배에서 부사관, 병 계급을 포함한 약 20여명을 지휘하는 부서장 역할을 맡아 약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 여군으로서의 독립심, 장교로서의 책임감 외에도 제가 가장 보람차게 느낀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환경보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3월, 첫 부임지인 공주함에서의 임무수행을 마치고 해군 본부 인적개발처를 거쳐 2함대 제 2기지전대에서 대위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특히 2기지전대는 해군 함대(군항, 육상부대, 주변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2015년 4월 美 국방장관께서 평택을 방문하셨을 당시 직접적으로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해군이 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 사업을 단독으로 영어 브리핑을 진행하여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제가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으로서 영국에서 수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영미권 국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독립심, 여학능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래에셋 장학생으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미래에셋이 추구하는 자립심, 공공이익의 실현입니다. 4년간의 군생활을 통해, 저는 미래에셋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 나름의 역량으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저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 해군 장교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전역 이후,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레인보우 워리어호'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하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더욱 지나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가진 역량을 발판 삼아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승선하여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의 유학생 생활, 4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린피스의 활동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에는 미래에셋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선발 될 장학생 여러분께도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군, 그리고 그린피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Welcome Aboard!' 입니다. 저를 훌륭한 조직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그 항해에 '승선'할 기회를 주신 미래에셋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에서 지속적으로 저의 성장 과정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장학생 출신으로써 미래에셋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인재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 여러분, 동기, 후배, 선배, 그리고 앞으로 선발될 장학생 여러분, 도전하고,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장에 미래에셋이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해군 대위 시절



현재 근무지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해외 교환장학생 15기 홍지수
(2015년 오스트리아 파견)

자신이 맡은 일 혹은 이런저런 일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많은 사람을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애살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학생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자신만의 목표가 있던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많은 것들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1학년 때부터 동아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밤낮을 지새웠던 저는 동아리 임기기간이 끝나고 난 후, 대학생활 내내 꿈에 그려왔던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아리 내에서도 여러 일을 척척 해결했던 저였기에 교환학생 준비와 생활도 순조롭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과정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준비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할 체재비 마련 등의 문제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체재비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후,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집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한 학기를 다녀오는데 천만 원이 넘게 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손에 쥐어 본 적도 없는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해서 모으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 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교환학생을 향한 저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학기를 휴학하기로 결정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학기 동안 학업을 계속하는 대신 교환학생 체재비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고 과외를 3개씩이나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저는 생활비도 혼자 힘으로 마련해야 하고, 교환학생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한 학기 동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꿈꾸던 교환학생의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며 체재비 마련의 여러 돌파구를 알아보던 찰나, 미래에셋의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저의 열정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 장학생 선발에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일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인턴을 하던 사무실에서 혼자 결과를 확인하고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감격해 부모님께 소식을 알리니 부모님께서 본인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서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장학생에 선발 된 후, 저의 교환학생 준비는 더욱 더 활기를 되찾았고, 아무리 복잡한 서류 준비와 준비 중 나타나는 문제라도 전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이 저를 믿고 지원해주는 만큼, 가서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며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교환 파견지인 유럽은 처음인데다, 한국에서 외국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는 저는 완전히 낯선 환경에 가는 것이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저의 파견 국가로 파견된 학생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후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간 첫날, 같이 파견 온 교환학생들과 현지 파견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전교생 중 아시아인은 저와 파견된 선배 단 둘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유럽 국가 출신 혹은 북미 출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 눈과 갈색 혹은 금발 머리를 가진 키 큰 친구들만 있는 곳에 오게 되니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것 또한 내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이자 값진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 영어실력이 그 친구들보다 못 할지라도, 전혀 기죽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교류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수업에서 거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저는 교수님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환경이 저에게 오히려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관련되는 수업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 혹은 미디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교수님께 설명을 해드릴 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에게 한국이 어떤지 알려줄 수도 있었으며, 덕분에 저의 영어 표현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 외에도, 교외활동과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그런 모임을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그만큼 영어 실력이 늘고, 각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교환학생 시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학업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지금껏 교육받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평적인 관계에서 같이 발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님들, 그에 맞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태도는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학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학점을 어떻게 잘 받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저는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측면에서, 지금의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는 남들이 이미 지나간 안전한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항상 열정은 많은 학생이었지만,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볼 수 있는 성과,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두며, 눈앞의 멀지 않은 미래만을 생각했던 저는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제 인생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열 살 이상 많은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네덜란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던 다른 친구들. 흔히 어떤 나이에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접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저는 지금 확실히 예전의 저보

다 자기 자신의 대한 믿음과 자신감도 더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글이라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값진 경험을 선물해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늘 감사하며, 교환학생 생활 후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꾸던 '미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던 미래에셋의 가치관을 따라, 앞으로 저도 반드시 다른 학생들과 열정 가득한 청춘들의 '미래'를 위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나의 성장 진짜 어른 되기

성장 05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장은제
(2015년 미국 파견)

교환학생을 가기 전 저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아슬아슬했던 얇은 유리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비틀대며 걸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는, 흉터 많지만 강한 유리가 된 듯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 순수하다는 점에서 유리에 비유했지만 전과 후의 유리의 질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저 스스로도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었기에 남모르게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1분 1초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발악했고 나만의 틀 속에 나를 두고 나만의 규칙대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가치관 문제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내가 살아온 문화의 테두리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만 같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를 살피고, 공동체에서 튀지 않게 행동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던 저에게, 개인주의적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존중이 녹아있는 그들의 삶은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나는 A일 때 B로 행동했는데 왜 나는 A가 B로 연결된 것일까. 왜 나는 당연하게 B를 생각했던 것일까. 지금까지 너무 편향되고도 좁은 생각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철학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내가 사는 이유까지도 찾으려 발버둥 치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일반 대학생으로 살았다면 아마 생각해보지 못 했을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가 제시하는 틀에 박힌 길이 아닌 나만의 인생길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제 인생 무대는 세계가 되었고 좀 더 가치 있고 존재감 있는 인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아졌습니다. 넓은 세계를 접하며 저와의 대화를 더 깊게 나누고 싶어서, 겨울방학 때는 미국 서부를 혼자 여행했습니다. 혼자 하는 첫 여행이라 많이 떨렸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호텔방 문을 발로 광 차고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겁쟁이 같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더 생겼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국생활이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 의지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 모두가 저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따라온 현상들인 것 같아 부듯합니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기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자신을 더 믿게 되었고 나의 가능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으니 교환학생 생활은 더 빛을 발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고 조금은 모났던 성격도 둥글게 둥글게 변해갔습니다. 막연한 열정이 아닌 이유 있는 열정,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간절함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두 학기 동안 적응이 힘들었던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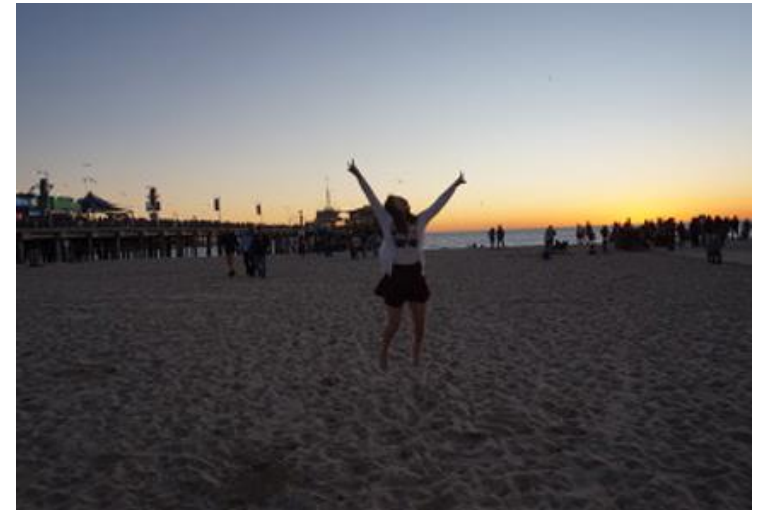
내면이 단단해지니 사소한 일들에 감정 상해하며 좌절할 일도 적었고 제 인생 여정에 여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내가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던 다짐을 지킬 수 있겠다는 믿음도 확고해졌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내가 얻은 것이 많으니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참된 봉사의 의미와 내가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의 봉사에도 더 의미가 생기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같은 가치관이지만 부리가 깊어진 것 같아 부듯하고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 부듯하기도 했고 너무 솔직했던 나머지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장학지원을 통해 저는 내면 깊이 성장했고 큰 돌부리도 센스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배웠습니다. 미래에셋의 지원 덕분에 더 제 자신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내 20대 인생의 출발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라고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일기장에 써 놓은 문구는 사실이 되었고 다녀온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숙된 마음과 가치관, 그리고 내 인생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내 잠재 가능성을 보고 장학생으로 뽑아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참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만하지 않는 자신감을 알게 되었고 흐물흐물한 나뭇가지 하나가 아닌 튼튼한 뿌리를 가질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철이 들었다는 말은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닐지 조심스레 여쭙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 있는 장은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혼자 여행 중 LA 산타모니카 비치

어른이 되기 위한 길목에서 도전한 멋진 턴(turn)

성장 06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오도영
(2016년 미국 파견)

“터닝포인트”

번하다 번한 수식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 교환학생을 얘기 할 때마다 매번 꺼내는 단어, 바로 ‘터닝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모양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평생 한국에서 나와 자라며 생활해왔던 사람들이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생각과 문화 속에서 살아본다는 것, 그로 인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환학생이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턴(turn)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서 나 자신과 꿈을 찾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맞이한 터닝포인트가 더욱 의미 있는 턴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턴을 만들었 나고요?

4학년 1학기. 25살. 취업을 뒤로한 채 미국으로 떠나다.

늦은 시기에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저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는 반면, 저는 4학년 1학기, 그것도 휴학을 1년이나 하면서 인턴도 2번 하고 난 뒤에 떠난 것이죠. 주변에는 취직한 친구들도 많았고, 저 역시 바로 취직을 눈앞에 눈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의를 받았던 일자리도 포기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로 나가기 직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나의 꿈은 나를 반영하고 있는가?’ 쉬이 대답할 수 없었고, 저의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벌에, 취업에 유리한 스펙도 갖추고 있던 제게 이런 고민은 ‘사치’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이냐며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제 고민은 간절했고, 나를 마주하며 온전한 제 모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낯선 세상 속에 던져져 학교, 전공, 나이, 성별, 스펙이라는 제한의 틀에서 벗어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아보고, 한국을 넘어 세계의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해보고 싶었습니다.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외국에서 수학(修學) 하고 생활하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야 했습니다.

늦은 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큰소리치며 결정은 했지만, 당장 포기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계획에 없던 휴학, 뒤늦은 토플 공부, 제시받았던 일자리의 거절 등,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주변의 ‘눈치’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아마 그들에게 제 결정은 취업 준비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해외에서 놀다 오겠다’는 심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꼭 가야지”라는 말에는, “교환학생 꼭 가야하니?”라고 되물었고, “경험을 쌓으면 내가 달라질 것 같아”라는 말에는 “널 바꾸는 것은 경력이야, 경력!”이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만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월급봉투를 안겨 드려야 할 나이에, 부모님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워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서는 아르바이트도 못 할 텐데, 생활비는 현재의 10배가 넘게 들어갈 테니까요. 굳게 결심했던 마음도 흔들릴 때,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금은 다시금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었던 제 결정의 이유를 장학생 지원서에 솔직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현실적 제약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제 꿈과 계획을 상상했고,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지원서를 넘어 꿈의 청사진이었으니까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젓기보다는 꼬덕여주며, “걱정없이 공부하고, 제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고 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미래에셋백현주 재단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며, 정교한 꿈을 꾸게 되다

“Every single day is surprise to me(매일 매일이 제겐 놀라움입니다)”

Gay&Lesbian Studies(게이&레즈비언 연구) 수업의 마지막 발표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와이프와 입양된 딸과의 에피소드를 즐겨 말씀하시는 레즈비언 여교수님, 동성애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매주 LGBT와 관련된 토론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미국의 ‘슈퍼화요일’을 생중계로 보았고, 선거 보도의 절정이라는 미국 대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막말 연설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인디언,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았던 기숙사 방에서는 주말마다 파티를 열어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교환학생에서의 삶은 매일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때로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다양성에 대해 포용력이 높지 않았었다는 것이겠죠.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기에, 다름에 대한 배타성이 다소 강한 편이었다는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점은 꼽으라면, ‘다양성 감수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글자를 넘어 진짜 저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커플의 연애 스토리와 결혼관을 들었고, 아랍계 친구들의 생일파티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사회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흑인 친구들과 토론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성과 부대끼며 사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들었고, 그들과 토론했고, 그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조금 부러워지더군요. 다름이 당당하게 이야기 되는 사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공동체 내에서 하는 이 사회가 말이에요. 조금만 달라도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우리 사회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 꿈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기자라는 목표 앞에 ‘사회적 약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뉴스를 통해 공명을 일으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꿈꿨던 어른이 될 준비를 마치다

다시 대학교 입학 시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은 시기에 떠나라고 권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는 시간이지요. 저는 그 과정의 마지막 도전으로 '세계 속의 나를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결정이 늦었던 만큼 포기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미래에셋 장학금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필요성과 절박함이 있었기에 더 많은 배움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터닝포인트를 말씀드렸지요.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저의 '터닝'은 '확신'입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가족, 친구, 학교, 전공,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의 경험,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본연의 모습과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될 준비를 마쳤다"고요. 미래에셋에서 받은 도움을 Pay forward(보은을 다음 세대에게 하는 것) 하는 멋진 어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나만의 Gap Year 내게 집중하는 시간

성장 07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김지영
(2016년 폴란드 파견)

문득,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지쳐 가면서 스스로의 인생의 방향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 스펙을 쌓으며,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활동이나 공부가 대체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왔던 시기가 있었다. '내가 즐거워하며 잘하는 것'. 진부하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치켜세우는 것들만이 전부인 양 쫓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차에 어느 강연으로부터 알게 된 'Gap year'란 개념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퉁굴며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일상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즉,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떠나게 된 곳이 바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이다. 폴란드어 과목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알아듣기는 어려웠던 이국의 환경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주변의,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스스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고, 꼭 이루고 가고자 마음먹은 세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세상 공부였다. 도시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에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각자의 특징과 장점들을 배워보고 싶었다. 주말이나 부활절 휴일 등 긴 연휴가 있을 때마다 유럽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였다. 또, 학기가 끝나고 3개월 정도 긴 여행을 계획하였고 실천하는 중이다. 여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면서 수업에서만 접했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몸소 배워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소통 공부다. 외국 친구들과 영어로 가볍게 의사소통할 정도를 넘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특히, 대중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해 보고 싶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 한 영어 스피킹 클럽을 알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멤버들 앞에서 주제를 정해 스피치를 하고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은 버킷리스트 도전이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도전해 보지 못 했던 일들을 버킷리스트로서 죽 써 내려가 보았다. 또한, 이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자 기록하는 습관도 기르고자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채에 수채화를 그려 고마웠던 외국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영어

원서를 사서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쌓아둔 여행과 일상 사진들을 포토북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아침마다 조깅도 꾸준히 했다. 마지막으로 엽서 프로젝트라고 하여, 여행을 갈 때마다 기념품으로 샀던 엽서들을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냈다.

나만의 프로젝트 세 가지를 계획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참 즐거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만 하고 넘겼던 것들을 하나둘씩 하면서 인생에서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은 지금 당장의 일상에 치이면서, 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간이 없다, 낭비다'라는 생각에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시기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 정의 내리고 싶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삶에 회의감을 애써 잊은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가져보라 조언하고 싶다.



바르사바의 상징 문화과학궁전 앞에서



바르사바 토스마스터스 멤버들과

미래에셋 장학생 때의 초심과 다짐, 지켜내고 이뤄내다

꿈 08

해외 교환장학생 13기 김다솔
(2014년 미국 파견)

지금까지 미래에셋은 저에게 큰 은인입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모님께서 지원해 줄 자금이 없어 교환학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때 제 포부와 꿈을 믿어주고 지원해주었고 결과적으로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미래에셋웹진 14년 1월 호에 미래에셋 장학생이라는 코너에서 3인방 중 한 명으로 인터뷰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문화재단에 들어가 기획 분야에 일하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며 소비할 수 있는 문화사업과 공공 예술 사업을 펼쳐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소중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과 치열한 경쟁률로 어떤 곳에 가든 취업하는 것이 크나큰 행복인 지금의 현실사회에서 저는 춘천시문화재단 홍보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불명확한 현실 속에서 가졌던 꿈이었지만 미래에셋의 지원과 응원이 있어서 제 꿈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갖고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바탕을 쌓도록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환학생이 되어서 이뤄내고 싶었던 것이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가르치는 경제와 경영 수업,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심도 있는 수업을 듣는 것, 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활동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들을 경험하고 즐기자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문화를 이해하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자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미국 가기 2개월 전부터 교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했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실현 가능한 것들만 리스트화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네트워크 교류를 하면서 하나씩 이뤄내기 시작했구요. 매 학기마다 심화 마케팅, 경제학 정규수업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듣는 것조차 어려워서 수업 시작 전에 녹음을 하고 남은 시간에 녹음했던 것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미국 대학생들처럼 질문도 자유자재로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성적을 당연히 받고 미국 경제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식견들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식을 얻어 가는 경험 말고도 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환 대학의 음악대학교에서 전문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클라리넷 단원 활동을 했습니다.

전문 음대생도 아니었지만 담당 지휘자에게 테스트를 받았고 당당히 합격해서 한 학기 동안 음대생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즐겁게 가볍게 했던 연주에서 좀 더 긴장감과 집중력을 갖고 연습하면서 전문 예술에 심취했고 그 노력을 정기연주회 때 멋있게 선보여 많은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틈틈이 미국의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거나 지역미술관의 전시회 감상,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 뮤지컬들을 보면서 다양한 예술들을 눈과 몸으로 배워갔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독교 커뮤니티에 들어가 소소한 일상적 이야기부터 미국의 큰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케이션 그룹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을 알아가며 친해지고 함께 운동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편하든 불편하든 사람들을 알아가고 주저 없이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험 덕분에 어떤 사람이든 먼저 다가가 친해지고 얘기 나누는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에서 이뤄낸 3가지 목표가 연장선상으로 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저의 꿈인 문화재단 직원이 되고 싶어 공연예술의 기초인 하우스 어서 업무를 합니다. 최첨단 도시로 알려진 송도의 트라이볼이라는 공연장에서 일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미국 생활했던 것처럼 일상에서도 소통하고 도움을 주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해주는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을 만나 소통하고 친하게 지낸 경험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연장 서비스에 대해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아 모든 하우스 어서를 통솔하는 하우스 매니저로 승진하였고 전반적인 공연기획이나 홍보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실무자들에게 현장에서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미국 교환학생 생활 때 현장에서 얻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넓은 식견과 깊은 고민들과 교환대학에서 배웠던 경제, 경영, 마케팅 지식입니다. 매년 새로운 공연들과 전시와 행사들을 보면서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로 들어 공연장 내부와 야외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페스티벌을 홍보하고 서비스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마케팅에서 배운 사례들이나 기존에 많이 공연을 봐 왔던 경험을 토대로 홍보와 서비스 운영을 했고 결국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우스매니저 6개월만에 당당히 춘천문화재단 홍보업무 정규 직원이 되어 춘천문화예술과 재단 사업 전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교환학생 가서 얻게 된 경험들과 지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화재단 홍보담당자인 제가 있었을까 뒤돌아 봤습니다. 물론, 교환학생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 직원이 될 수 있겠다 보지만 문화예술판에 들어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바라보며 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하는 제 자신으로 성장하는데 미래에셋이 저에게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이를 본받아 재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젊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인 멘토로서 활동해 나가며 더 많은 친구들의 꿈을 이뤄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미래에셋에서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문화예술판에서 좋은 사업들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꿈, 현재의 꿈, 미래의 꿈

해외 교환장학생 14기 정다운 (2016년 미국 파견)

나의 대학생활 로망 중 하나는 바로 교환학생이었다. 토플 점수를 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시 꿈을 외면하고 있다가, 이러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늦은 시기임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교환학생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다. 4학년 2학기라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였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었기에 합격 사실을 알고는 정말 기뻐다. 하지만 마냥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막상 교환학생에 붙고 나니 미국 교환학생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았다. 실제로 미국 대학교의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400만원을 넘기는 무시무시한 금액이었다. 학생 신분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을뿐더러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교환학생 장학금 중 가장 유명한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금 대해 알게 되었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에 이다음에 나도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꼭 환원하겠다고 썼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정말 뿔 듯이 기뻐다. 비자신청이나 수강신청, 기숙사 신청 등 교환학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나니 그런 준비들도 즐겁게 느껴졌다. 장학금은 어마어마한 기숙사비와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데 보태어 사용했다. 6월에 있었던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놀랐다. 세계 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될 예정인 수많은 장학생들이 북적북적 강당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나도 그 수많은 장학생 중 하나였지만, 도대체 미래에셋은 무엇을 믿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매년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다음에 내가 받은 것들을 사회에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야심 차게 다짐했던건만, 강당을 메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14년 8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미국에서 보낸 5개월 남짓의 교환학생 기간은 정말 쏠살같이 지나갔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시간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교환학생을 가기 전 작성했던 장학금 지원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그중에 교환학생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 쓴 내용이 있어 이를 가져와본다. ‘첫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둘째,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익히고 싶다. 셋째, 그동안 국내에서 영어공부해왔던 것들을 미국에서 한 번 써먹어 보고 싶다’. 막연하게 써 내려갔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들인데,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 세 가지 꿈을 모두 이룬 것 같다.

현재 나는 대학원에 진학해 학부 때보다 좀 더 세부적인 전공의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이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크게는 실무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어쩔 땐 두렵기도 하다. 학부생 때는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일찌감치 현실과 타협하여 내 진로를 정해버리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인 것 같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만약 경제적 문제라는 벽에 부딪혀 교환학생에 도전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경험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꿈은 나에게 지나치거나 사치라고 느끼게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현실의 벽보다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꿈과 가능성만을 믿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기꺼이 투자해준 누군가가 있어왔던 그 경험 때문일 것이다. 학부생 시절 교환학생이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나 또한 앞으로의 꿈을 찾고 노력한다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 옆엔 분명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동안 나와 같은 6,634명(2016.12말 기준)의 장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미래에셋박헌주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이다음에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글을 마치며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교환학생 시절 호주,스페인,프랑스에서 온 룸메이트들과 함께

절망의 끝에서 배운 인생수업

꿈 10

해외 교환장학생 15기 나유빈
(2015년 미국 파견)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 가난한 청춘만 아프죠?”

실업계에 진학해서 성인이 되기도 전부터 돈을 벌어야 했고, 누나가 풀던 문제집을 물려받아 공부하며 그토록 바라던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내 대학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입학하기도 전부터 주유소에서 손발을 녹여가며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20살의 대학생활도 함께 시작되었다. 택배 상하차, 편의점, 인형 탈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했다. 졸업을 앞두고까지 해외 여행은 커녕 군대에서 저축한 100만원으로 등록금을 냈을 정도로 대학생활은 궁핍했다. 게다가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의 유일한 가장인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그토록 풍성하던 머리숱이 한 가득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삶은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 있어? 한 번 해봐”

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회복되어갔고, 아주 약간의 보험금을 받은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빛이 없는 집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내게 말했다. “아들, 혹시 해보고 싶었던 일 있으면 지금 꼭 해봐, 이번에는 엄마가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왜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원 없이 울어보았다. 사실 나는 영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해외 한 번 나가본 적 없고,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지만 수능 98점, 토익 950점, 드림클래스 영어 강사까지 모두 영어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토플 공부를 시작했다. 꿈에도 그리던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아니 어쩌면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 위해 공부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집 형편은 미국 여행조차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 학업과 토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몸이 가장 힘든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절망 속의 꿈을 꺼내보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금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지원 자체를 망설였던 것은 너무나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짐했다. “남들처럼 봉사활동도, 글쓰기 경험도, 화려한 스펙도 없지만, 그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나만의 간절함을, 열정을, 그리고 진솔한 꿈을 녹여내자”. 자기소개서에 그 꿈을 펼쳐냈다. 교환학생의 이유가 아닌 삶의 가치를, 의미를, 절망 대신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활은 꿈에서 현실이 되었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 미래에셋이 ‘최종 합격을 축하 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주었던 그 순간에.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미국 플로리다를 여행하며 작성한 일기에는 위의 구절이 적혀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금 예전과 비슷한 생활, 그리고 취업준비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이 내 인생 최고의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삶이 절망이 아닌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주었으니까.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어차피 꿈꾼다고 될 것도 아닌데”

이제는 내가 받은 도움을, 희망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교육 소외대상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항상 꿈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하지만 그럴 때면 본인의 형편을 잘 알고 되레 꿈꾸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반지하 단칸방에 네 가족이 모여 살고, 부모님이 편찮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울 수가 없는 학생들이 과연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질 뿐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아직 꿈을 꺾보기도 전의 아이들이 그것을 놓아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꿈은 삶의 원동력이고 희망이다. 그 학생들이 언젠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성취했을 때, 그들의 삶은 비로소 이유를 찾고 앞으로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을 것을 부탁한다. 그 옆에서 꿈을 잃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와줄 것이다. 나 또한 미래에셋의 도움 없이는 꿈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작 교환학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 하나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사소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부터가 웃음이 많아지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아이들도 날 볼 때마다 잘 웃어서 좋다는 말을 자주 한다. 새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예전의 내가 생각나 현재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경험을 내 아이들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나의 달과 나의 6펜스

꿈 11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문예진
(2015년 영국 파견)

Where are w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못 철학적이기도 한 위 문장은 19세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이 예술적 종착지라 할 수 있는 타히티에서 완성한 걸작의 이름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철학적인 이 작품명이 내가 해외 교환학생을 도전하는데 있어서, 작지만 인상적인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미술이나 화가들의 삶에 대한 소양은 없었다. 그러나 유독 고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 신입생 시절 읽은 서머셋 몸(Somerset Maugham)의 『달과 6펜스』란 소설에서 시작됐다. 소설은 고갱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각색하여 풀어낸다.

평범한 증권사 브로커였던 고갱이, 예술에 뜨거운 열망을 느끼고 유럽 곳곳에서 회화(繪畵) 능력과 철학적 사고를 함양하여, 타히티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기까지. 그 모든 결과들의 시작점은 바로 ‘떠남’이었다. 처음부터 그가 인류사적 작품을 남기겠다는 의도 하에 타히티로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곳으로의 낭만적 끌림에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 시장 붕괴로 실직자가 된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떠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낯선 땅 타히티에서 꿈을 구체화했고, 미술사에 손꼽히는 유산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갱과의 공통점을 하나 들자면, 나 역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 교환학생을 간 것은 아니다. ‘가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더 솔직한 언어로 풀어낸다면 ‘잠시 일탈 하고 싶다.’일 것이다.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풍파에 맞서 자격증 취득, 어학 등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는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며, 또 취직을 해도 터져 나오는 불만들이 막연히 두려워 그 갑갑함에 도피하듯 영국행을 선택한 부분도 상당하다.

그렇게 떠난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의 1년, 계절이 네 번 바뀐 이 기간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갱이 낭만적인 이끌림에 간 타히티에서 구체적인 꿈을 그렸던 것처럼, 나 역시도 영국에서 내 꿈을 향한 작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희미하고 안갯속에 있던 것 같았던 꿈이란 것이 영국 교환학생에서의 크고 작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구체화 된 것이다. 먼저 구체화된 꿈부터 밝히자면, 2016년 현재 나의 꿈은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경험이 작용하였다.

그중 하나가 학교 동아리 활동이었다. 영국은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나라지만 그중 내가 다녔던 셰필드 대학교는 영국내에서도 가장 학생 활동이 활발하기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토론하는 Alt-Econ Society와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을 도출해보는 Socialist Society에 참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보낸 첫 학기 때는 시리아 난민소년 아일란 쿠리디의 역사체 발견으로 온 유럽이 떠들썩했을 때여서 난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두 번째 학기에는 브렉시트와 영국의 의료보험인 NHS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의 토론에서 나는 주로 경제학적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곤 했는데 객관적 수치에 집중했기에 꽤 호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다.

또 하나는, 영국에서 수강했던 Modern Finance 나 Money Banking and Finance 와 같은 금융 관련 전공 수업이었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본산이라 할 수 있고, 아직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의 대학에서 금융 관련 수업을 듣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과 금융시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나의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의 거래 흐름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영국학생들과 교수의 금융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을 접하면서 내가 이제껏 대학에서 전공한 경제학과 금융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었다.

이렇듯 영국 교환학생에서의 경험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해결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훈련시켜줬고,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넓은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줬다. 내 대학 전공을 더 살려서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전달하려면, 일단 전공을 살린 기관에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통해 배움을 더 쌓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남은 학기부터 최선을 다해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결국 먼저 해야 할 것을 찾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갱은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았을까? 나는 아직도 저 철학적 질문에 대해 자신감 있게 답하기 어려운 존재다. 하지만 고갱은 ‘떠남’으로써 꿈에 가까워졌고, 나 역시도 한국을 잠시 ‘떠나’ 영국에서 지내면서 막연했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흔히 『달과 6펜스』 소설에서 달은 ‘꿈’ 또는 영혼을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을 가리키고, 6펜스는 ‘현실’을 지칭한다고 해석된다. 나는 낯선 땅 영국에서 꿈과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 이 둘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실감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한다. 비록 경제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허망한 목표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있고, 영혼이 설레는 그 무엇을 위해 해외로 나가곤 한다. 그에 비해 난 꿈도 정하지 못 한 채 해외 교환학생을 결심했다. 하지만 나의 교환학생은 대학 4학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꿈조차 못 정했던 내게 나의 달과 나의 6펜스를 가르쳐 준 기회였고,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짧은 지면의 에세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두 번째 ‘달’이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과 함께한 나의 꿈

해외 교환장학생 16기 신동원
(2015년 중국 파견)

2015년 1월, 우연히 신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중국, 부의 비밀’이었는데 그 중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화시촌’이라는 한마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시촌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공동체 경제 모델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화시촌의 주민들은 화시그룹의 직원이자 주주이며 주민 1인당 소득은 중국 전체 평균의 7배에 달합니다. 이를 본 뒤, 화시촌이 우리나라가 처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접 중국에 가서 화시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중국 교환학생 파견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중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장학생에 지원하기 전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시 서류접수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고 설상가상으로 교환학생 면접시험, 각종 조별 과제와 개인 과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와 온전히 자기소개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제16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에 당당히 선발되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낙후된 환경과 위생, 치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편견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미리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의 격려와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배와의 만남’ 행사에서 만났던 선배 장학생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8월 19일, 중국 하얼빈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의 첫 한 달 동안은 현지 적응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중국은 더럽고 무질서하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낙후된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 화장실의 모습은 인천국제공항을 그리게 만들었고, 학교 버스를 타고 가며 본 하얼빈 시내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90년대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교통신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사람들이 건너가도 자동차들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아 고생했지만 이런 교통 문화에 적응한 후에는 누가 중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도로를 건너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된 중국 친구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정보,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알리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결제 시스템과 달리 중국의 알리페이는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용품들은 모두 타오바오에서 구입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밀려드는 택배에 택배기사님이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외울 정도였습니다. 또, 매년 11월 11일마다 열리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도 참가하여 그동안 사고 싶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반값에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체험해보고 나니 중국인들이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중국인들의 실용 정신을 볼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 장학생과의 만남’ 행사 마지막에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평소 해 보고 싶었던 ‘나 혼자 중국 여행하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파견 기간 중 방학을 이용하여 혼자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약 3주 동안 상하이-소흥-항저우-쑤저우-난징-시안-청두-충칭을 다녀왔고, 여름방학에는 약 2주 동안 쿤밍-리장-따리-상하이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었는데 그 덕분에 중국 각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중국인들조차 타 지역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하얼빈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소수민족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같은 방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 중국 각 지역의 특색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민감할 수도 있는 한-중간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이라 제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중국에 대한 막연했던 두려움과 편견을 모두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만난 중국 친구들도 우리나라의 20대와 같이 취업과 연애, 외모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여행 중 바라본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더럽고 게으르다는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상하이에 갔을 때, 와이탄에서 푸둥지구의 높은 고층 건물을 바라보다가 ‘Mirae Asset’ 빌딩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Mirae Asset’이란 이름이 더 잘 나오도록 사진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미래에셋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국하기 전에 다시 상하이를 오게 된다면 꼭 와이탄에 들려 작별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저는 운남성 여행을 마치고 상하이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시 찾아간 와이탄에는 역시나 ‘Mirae Asset’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년간의 꿈만 같았던 중국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유럽연합(EU)이 있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에도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신뢰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중·일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시아 공동체 설립 또한 헛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금은 꿈이었던 중국 교환학생을 실현 가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을 통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미래에셋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상해 와이탄 푸둥지구에 있는 미래에셋빌딩과 함께

낮선 땅에서 찾은 나의 '꿈'

꿈 13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김주평
(2016년 터키 파견)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으로 터키를 다녀오기 전까지 저는 그저 그런 남들이 쌓는 스펙이나 쫓는 평범한 대학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늘 어학연수나 세계여행을 꿈꿔왔지만,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꿈은 사치라 생각했었고, 남들 하는 대로 토익, 대외활동, 공모전이나 해가며 대기업에 취직해야겠다는 허무맹랑한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에 대해 알게 된 후 처음으로 해외로 가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늘 반복되던 일상에 지쳐있기도 했고, 이 일상을 바꿔줄 뭔가를 스스로 계속 갈구하고 있었던 저였기에, 교환학생은 저에게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터키에 가게 된다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생소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좀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접하고,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희망들을 가지고 저는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으로서 터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권은 제게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겪기도 했고 테러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교환학생의 긍정적인 면만 상상해왔던 저였기에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만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 총영사관님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가하여 테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고, 친구들과끼리 서로의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런 깨달음들은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에서 큰 재산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선진국들을 가보며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축제 등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과 얘기하며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만약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잡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시큰거립니다. 저는 가기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란 것을 가지게 되었고, 적어도 저에게 있어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강연가의 꿈을 갖게 되어 귀국 후 대학생 강연대회에 참가한 모습

미래에셋 장학생에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창업까지

도전 14

글로벌 투자 전문가 장학생 2기 박홍민
(2007년 미국 파견)

저는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www.finda.co.kr)의 공동대표입니다. 핀다는 개인이 자신에게 최적의 금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상품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지만 금감원 핀테크 데모데이 선정, 하나은행 1Q랩 선정, 매경 핀테크 어워드 수상 등 금융계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고 서비스 정식 런칭 4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핀다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미래에셋의 영향이 무엇보다 큼니다. 그리고 핀다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미래에셋과의 인연이 우연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에셋과 인연을 처음 맺게 된 것은 2007년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2기로 선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UPenn)의 City and Regional Planning(도시계획) 석사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공학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저는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으로 전공을 변경하였고 Wharton School과 공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UPenn의 도시계획 석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할 수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미국 Ivy league 학교의 학비와 Philadelphia의 생활비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때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금융공학이 큰 각광을 받고 있었고 분양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금융이라는 시각 자체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주 회장님께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금융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러한 해안 덕분에 저는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시기는 2007년에서 2009년으로 공교롭게도 세계를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한 subprime mortgage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비판론과 비판론이 들끓었고 학교에서는 subprime mortgage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자인지를 분석하는 특별 수업 등이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이니 만큼 entrepreneurship, 즉, 창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수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창업의 매력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황 속에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첫 직장으로 선택하게 된 곳은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에게 제공되는 썸머 인턴십 혜택을 통해 2008년 여름에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대상으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미래에셋에서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에셋이 글로벌 금융기업이 되는 데에 작게나마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자산 배분팀에서 일하면서 전세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많은 미팅 및 컨퍼런스콜을 할 수 있었고 또 실력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최고의 상사분들 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얻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얻은 점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전문성, 윤리성 그리고 향상심이 항상 강조되었고 그러한 점은 지금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좋은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직접 창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고객과 맞닿는 지점에서 서비스를 직접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는데 여러 경험 끝에 현재 핀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학시절 배운 창업가 정신 및 학문적 지식,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 및 프로페셔널리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핀테크 회사를 창업하게 되다 보니 미래에셋과의 직,간접적인 인연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글로벌 투자사 중 한 곳에 미래에셋이 LP로 참여하고 있고 또 미래에셋증권이 금감원에서 이어준 핀다의 멘토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핀다도 더욱 빠르게 성장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협력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핀다는 20-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최적의 금융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니만큼 미래에셋이 제공하는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잘 소개하고 또 핀다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핀다도 미래에셋 장학생 프로그램처럼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정병수 (2016년 독일 파견)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17기 정병수입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도움을 받아 6개월간 베를린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도전했던 작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어붙은 곳에 신명의 씨앗을”이라는 주제로 7개국 10도시에서 한국 전통연희 1인 공연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탈춤, 풍물, 마당극을 꾸준히 접해왔고, 이런 우리의 역동적인 문화를 해외에 직접 전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운명처럼 교환학생에 합격하였고,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미리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했고, 탈춤과 채상소고(상모를 돌리면서 소고를 치는 공연)를 프로그램에 맞게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곳에 신명의 씨앗을”이라는 공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얼어붙은”의 의미는 당시에 취업 걱정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의 마음과 4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막연하게 주눅 들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던 당시 유럽 대륙의 차가운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연희는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으며,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 불안정했던 저의 마음과 유럽 땅에 “신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학금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미리 전통의상과 신발, 상모를 준비한 후,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총 10번의 공연 중 몇 가지 공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소중한 공연이지만 그중에서도 더 기억에 남는 공연들입니다. 첫 번째는 터키 이스탄불 술탄 아흐멧 광장에서 했던 채상소고 공연입니다. 파견교가 있는 베를린까지 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터키에서 경유를 하여 이스탄불에 5일간 머물렀습니다. 당시 유럽으로 간다는 설렘도 컸지만 불안과 걱정 역시 많았고, 터키 이스탄불은 잦은 테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내 구시가지에서도 가장 큰 광장인 술탄 아흐멧 광장에서 신명을 씨앗을 뿌려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날 전통의상을 갖춰 입고 상모를 올려 매고 거리로 나서자, 많은 터키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장에서 상모를 고쳐 쓰며 준비를 하는 도중에는 한 아저씨께서 동영상도 직접 찍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저의 짐을 맡아 주었습니다. 상모를 돌리며 광장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힘차게 춤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모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공연을 마무리하고 보니, 공연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 이 광장이 얼마 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곳이라 사람들이 모이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슬람교의 기도 시간이 되어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공연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미리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준비한 탈춤을 추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음악도 없는 초라한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어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공연 후에 관중들과 사진을 찍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터키 학생은 한국인과 처음 대화해 보는 거라며 벅찬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하기도 했고 준비한 공연을 모두 선보이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의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코 프라하에서 했던 공연입니다. 제가 살았던 베를린에서 프라하는 버스로 4시간 거리여서 공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프라하의 한인 민박에 지인이 일하고 있어서 그곳에 묵으며 저의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민박집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공연을 도와주었습니다. 역시 프라하에서 가장 큰 광장인 바츨라프 광장으로 나갔고, 10번의 공연 중 가장 많은 유동인구와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촬영을 도와주시고 저는 “낙양 동천 이화 정”이라는 불림을 외치며 상모와 탈춤 공연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만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좋은 음향장비를 갖춘 다른 거리 공연들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공연을 도와주셨던 사장님을 비롯한 같은 숙소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스피커를 사용, 태극기와 같은 소품을 이용, 간단한 인사말 준비 등과 같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공연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연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었고, 새로운 구성을 그려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연은 베를린 근교인 포츠담에서 했던 1인 공연입니다. 수업이 없었던 금요일을 이용하여 저는 기차를 타고 포츠담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공연을 통해서 신명의 씨앗을 뿌리면서 동시에 혹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많은 거리 공연자들이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최대의 관광지인 상수시 궁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에서 두 번째 계단에 자리를 잡고, 작은 그릇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모 개인놀음은 체력소모가 많은 그 특성상 개인당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저는 쉬는 시간을 커버해 줄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새로 구입한 스피커의 음량이 좋지 않아서 반주도 없이 혼자 한 시간 가량을 쉬지 않고 공연한 결과, 한화로 약 8~9,000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관광객도 많지 않았고, 날씨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처음치고는 괜찮은 성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멀미가 나도록 상모를 열심히 돌린 탓에 그 한 시간 동안 상모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데 그만 버스에 ‘물체’라는 상모 부품 하나를 놓고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후 저는 포츠담에 있는 모든 버스를 확인하고 분실물 센터에 연락하는 한편, 광고지를 만들어 제가 탔던 버스 기사님께 전달하였지만 결국 그 부품은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츠담에서의 공연은 유일하게 수입이 있었던 공연이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더는 유럽에서 상모를 돌릴 수 없게 된 슬픈 공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공연은 여러 지역의 탈춤 (봉산탈춤, 강령탈춤, 고성오광대 등) 들을 섞어서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개해 드린 공연 이외에도 공휴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아이슬란드, 모로코,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총 10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비록 저는 프로의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정식으로 반주에 맞춰서 공연을 하지도 못했지만,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던 교환학생 기회와 미래에셋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지만 자발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이 도전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 작은 신명의 싹을 틔웠습니다. 또한, 삶의 자신감을 얻어 교환학생 생활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으며, 계획하고 실천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꿈같은 10번의 공연과 수많은 연습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럽에서의 거리 공연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은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2000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래에셋 장학사업은 그동안 총 6,634명(2016.12 기준)의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의 장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4,017명)', '미래에셋 국내장학생(2,495명)',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122명)' 지원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미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중국 상해 탐방 '글로벌 문화체험단', 청소년 개인별 맞춤형 도서선물 '희망듬북 도서지원', 조손(祖孫)가정 대상 '제주희망캠프',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당당한 자립을 응원하는 '청소년 금융진로교육'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과 건강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

나눔문화 - 미래에셋이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

미래에셋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1개 이상의 봉사단에 가입합니다 현재 60개로 늘어난 임직원 봉사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희망의 훈금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를 통해 모인 금액을 미래에셋 전 계열사 1:1 매칭을 통해 2배의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매칭그랜트'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배려와 낮은 자세로 어제보다 살맛나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반가운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 미래셋 장학생
희망스토리 공모전 당선작

발행처 미래셋박현주재단
발행일 2016.12
홈페이지 foundation.miraeasset.com